

출장보고서

1. 출장 개요

- 목 적 : 호주의 요트 산업 시찰 및 호주 요트 협회 관계자 면담
- 출장지 : 호주 시드니
- 출장자 : 정기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박대권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 기 간 : 2015년 8.9~8.13
 - 출장 세부 일정
 - 8월 9일(일) ~ 10일(월): 출국 (인천 → 시드니)
 - 8월 10일(월): 호주요트협회 (Yachting Australia (아래 BOX)) 방문
 - * Mr. Chris Tate (Director, Education & Training) 면담
 - 8월 11일(화): Royal Prince Alfred Yacht Club 방문
 - 8월 12일(수): 호주요트협회 방문
 - * Mr. Martin Silk (Chief Instructor), Ms. Amy Howie (Sports Service Coordinator)면담
 - 8월 13(목): 귀국 (시드니 → 인천)

Yachting Australia

Yachting Australia is the national sporting organisation (NSO) for sailing, and peak body for recreational boating at Clubs, in Australia. It is one of over 90 NSOs recognised by the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ASC).

Yachting Australia is a Federation consisting of eight State and Territory Associations, often referred to as Member Yachting Associations (MYAs). In turn there are more than 360 affiliated Clubs, who between them have approximately 65,000 registered on-water members.

In 2014, Yachting Australia moved to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fter a change to the Constitution. Yachting Australia is a not-for-profit organisation governed by a voluntary Board with a mix of elected and appointed Directors.

Australian Sailing is the performance arm of Yachting Australia in partnership with the Australian Institute of Sport (AIS) and with support from the Australian Olympic Committee (AOC) and the Australian Paralympic Committee (APC). The Australian Sailing Team is the national representative team for Olympic and Paralympic class sailing.

2. 출장 활동 내역

A. Chris Tate 면담

- 일시: 8.10(월) 15:00-16:30
- 장소: Yachting Australia (Level 1, 22 Atchinson Rd.)
- 면담 내용
 - 협회로써의 Yachting Australia
 - 회비를 내는 회원(membership)과 요트인구확산(participation)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요트는 물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호주의 해안선에서 주로 즐기며, 내륙에서는 즐기기 힘든 한계 때문에 축구나 럭비처럼 대중화되기에는 환경적인 한계가 있음
 - 호주에서 요트의 대중화
 - 아직도 엘리트 스포츠로 여겨지고 있음.
 - ※ 문제는 비싼 비용 때문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요트 클럽에서는 리스 등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Turning Point : America Cup 대회
 - : 1983년 시작된 미국과의 국가간 경쟁인 America Cup이 요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계기가 됨
 - 시드니 항에서 개최되는 Sydney Harbor Race도 Club간 경기로 인기가 높음
 - 요트에의 입문
 - 요트는 나이와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굳이 어려서 시작하지 않아도 됨.
 - 학교와 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과정은 없고, 협회는 주로 부모들을 유인하려고 함.
 - 학생들을 위해서 TACKER 프로그램 운영
 - 직업으로써의 요트

- 주마다 사정이 다름 : 시드니가 소재하고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NSW (New South Wales)주의 경우 강사를 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관련 수요가 많음.
- 그러나, 아직까지 요트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로서 Full-time은 많지 않고, Casual work인 경우가 많음.
- 해당 직업을 발판으로 다른 직업(크루즈, 리조트 분야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음.

B. Royal Prince Alfred Yacht Club 방문

- 일시: 8.11(화) 12:00-15:00
- 장소: Royal Prince Alfred Yacht Club

○ 방문 개요

- 시드니 인근의 대표적 요트 클럽으로 호주 전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임
- Powerboat, Kilboat 등 각종 요트 450여척 보유
-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선박수리, 관련상품판매점, 요트 거래소, 내장 전문점 등 관련 산업들이 콤플렉스를 형성하고 있음.
- 요트 클럽 중심으로 수면에 접한 고급 거주지역이 형성됨.
- 요트 거래는 거래소 뿐 아니라 회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짐.

C. Martin Silk 면담

- 일시: 8.12(수) 09:30 - 10:30
- 장소: Yachting Australia
- 면담내용
 - 호주의 요트 산업은 크게 상업 영역(Commercial World)와 여가 영역(Recreational World)의 두 개로 구성됨.
 - 상업 영역은 국가 전체에서 통용되는 면허와 규제가 일반적
 - 여가 영역은 각 주별로 면허 및 규제를 적용함.
 - 호주에서의 요트 산업의 전망
 - 요트 산업은 Charter Industry와 연결되어 있는 등 확장가능성이 매우 큼.

- 요트나 파워보트 소유권을 나눠서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는 공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큼.
- Powerboat 등 큰 배는 아직도 elite sport라는 인식이 강하고, 대부분 Dinghy나 Kilboat 등 작은 배를 이용
- 전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350여만 명이 boating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18만 여명이 정기적으로 boating을 함
- 그러나, 아직 대부분이 낚시 목적으로 배를 타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의 요트 이용으로의 편입이 기대됨.

○ 요트의 산업적/교육적 이용

- 시드니: 요트 이용의 80%가 상업적 목적임
 - ※ 운영사들이 관광객 수송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금융회사 등이 포상(Reward) 목적으로 요트 사용: 팀워크 제고의 효과적 수단
- 퀸즐랜드: 국제/국내 경기 수요가 많음

○ 학생들의 요트 이용

- 요트 이용하는 학생들의 70%는 사교 목적의 동기 (social interest).
- 20%는 면허취득을 위한 기술습득, 나머지 10%는 스포츠에 입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 요트협회와 학교간의 직접적 연계는 없음: 비용과 안전 문제
 - ※사립학교의 경우 직접 요트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요트에 입문하는 것은 학교수업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임.

○ 요트의 교육적 가치

- 체육과목으로 수영과 요트는 병행 가능함.
- 요트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 많아서 대학 수준의 교과목도 가능함: 항해를 위해서는 온도, 바람, 방향 등 고려해야할 것이 많은데 결국 수학, 해양학, 체육 등 여러 학문 영역이 교차함.
- 위기 관리 및 도전정신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 함의를 줄 수 있음.
- 호주에서도 아직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부재함.

○ 요트산업의 직업적 전망

- 시드니의 경우 요트 이용이 대부분 상업적이고 기능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 이외 지역은 사교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요트 이용이

-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사료됨
- 상업 시설에 의한 고용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활용가치가 있음
 - ※ 비도시 지역의 경우 마리나의 요트클럽이 지역사회 community center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일함.
- 그러나, 아직 대부분이 낚시 목적으로 배를 타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의 요트 이용으로의 편입이 기대됨.
- academic career가 아닌 practical career로서의 매우 높음

D. Amy Howie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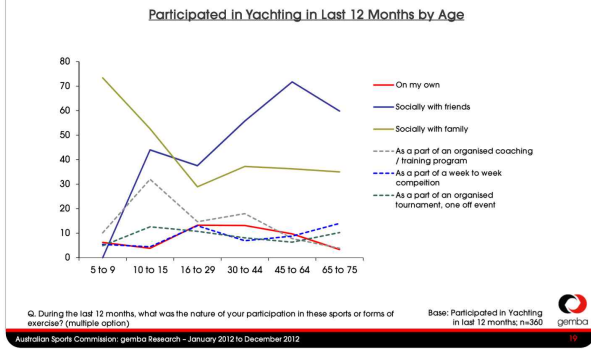
- 일시: 8.12(수) 10:40-11:45
- 장소: Yachting Australia
- Certification
 - IRC: 영국 Royal Ocean Racing Club의 요트 및 선박 등급화(handcapping) 제도. 선박 뿐만 아니라 요트 클럽에 대한 등급화 기능도 있음.
 - ORCi (Offshore Racing Committee)에서 만든 명확한(transparent) 요트경기 규칙 중 하나. IRC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됨. 요트의 크기 측정 및 등급화의 기준 및 요트 경기의 등급화에 대한 기준 제시.
 - 2009 Rolex Sydney Hobart Yacht Race의 경우 IRC와 ORCi를 동시에 기준으로 진행함.
- 직업으로써의 요트
 - 가능성이 높음.
 - 항해, 유지 및 보수, 건조, 디자인, 중개, 식음료, 상업적 발권 등 요트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다수여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큼.
 - 전일제 뿐만 아니라 part-time 및 자원봉사 분야도 가능
 - ※ 전일제로 일하던 사람이 후에 자원봉사자가 되어 일하는 경우도 많음.
- 요트 산업의 지역발전 파급
 - 시드니 등 대도시는 공유수면에 마리나가 발달
 - 도시 이외 지역의 경우 마리나가 공유수면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

- 우가 많아서,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큼
- 마리나를 주변으로 클럽하우스, 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수면에 인접한 주택 건설 등 마을의 형성에도 기여함.

○ GEMBA Report

-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Gemba가 2013년 호주스포츠위원회(ASC, Australian Sports Commission)에 각종 스포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요트도 포함
- 요트 참여인구는 2%로 전체 32위로 나타남.
 - * 호주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은 수영 (33%), 헬스 (20%), 댄스 (17%), 자전거 (17%), 달리기 (15%)임. 골프는 10%로 축구(10%)와 참여비율이 같고, 농구(9%)나 탁구(9%)보다 높음.
- 요트 참여 인구의 56%가 16세 이상이고, 45-64세 인구그룹의 3%, 65-75세의 4%가 참여. 10-15세도 4%에 이르러 학생 대상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임
 - *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46세로 가장 높음. 골프와 Lawn Bowls가 45세로 비슷.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인 운동은 수영, 댄스, 자전거, 서핑으로 수상 스포츠가 주를 이룸
- 요트를 즐기는 빈도는 가끔 (less often)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39%), 2-3개월에 한 번(24%), 매달(21%) 순이었음. 주 1회는 6%, 주 1회 이상은 9%로 일상적인 운동은 아님.
 - * 이에 비해서 헬스는 주 1회 이상이 62%, 자전거 39%, 수영 27%로 스포츠의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음. 참여 빈도가 가장 비슷한 스포츠는 골프로 가끔 30%, 2-3개월에 한 번 22%, 매달 25%, 매주 10%, 주 1회 이상 13%임. 연평균 참여일수도 30일 미만으로 골프와 비슷.
- 참여의 방식도 casual한 방식이 83%, 기관을 통한 (organized) 참여가 25%임
 - Casual한 방식 (55%: 친구와 함께, 39%: 가족과 함께, 9%: 혼자)
 - Organized된 방식 (14%: 레슨에 참여, 9%: 매주 시합, 9%: 조직화된 토너먼트, 경기 등)
- 연령대별 참여방식: 16세 이전에는 가족과 함께 오는 비율이 높지만, 그 이후는 친구들과 오는 비율이 높아짐 - 사교 수단으로써의 역할이 큼

1.11 Nature of Yachting Participation (by Age)



- 기관을 통한 참여자의 현황: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클럽을 이용하는 사람이 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학교(24%)가 차지함. 학교의 경우 자체 마리나를 갖춘 사립학교들에서 요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요트 참여의 동기:

휴식(Relaxation): 44%, 사교(Social): 36%, 시합(Competition): 11%, 체력단련(Fitness): 9%

- 요트를 망설이게 되는 10가지 장벽:

비용 (44%), 장비의 부족 (25%), 누구와 함께할지 (20%),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19%), 시설의 부족 (16%), 회원권이 필요해서 (16%), 시간이 오래걸려서 (14%), 시간(11%), 부상(10%)

- 요트를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

바빠서 (14%),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 (13%), 프로그램 종료 (9%), 금전적 이유 (9%), 게을러져서 (8%), 흥미 상실 (7%), 이사 (6%), 동료 (6%), 지겨워짐 (5%), 종목 전환 (4%)

* 골프, 수영, 자전거 등의 운동도 그만 두는 가장 큰 이유가 '바빠서'이므로 다른 종목과 큰 차이가 없음. 골프, 자전거, 헬스 등은 그 다음이 부상 등이 그 다음 이유임.

- 요트 관련 소비자 행동 분석 요약

1. 참여에 대한 열의 부족
2. 폐쇄적 이미지와 접근하기 힘들
3. 늦은 시작 연령
4. 어린이, 낮은 연령의 성인, 가족들의 큰 관심
5. 휴식(Relaxation) 목적
6. 비용이 가장 큰 장벽

○ 여수 요트 사업에 대한 제언

- 요트 산업의 대중화를 위한 계기가 필요 - 요트대회 개최

- 후주의 경우도 요트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스포츠가 아니라 1983년 아메리카컵을 계기로 대중에게 알려졌음.
- 우리나라에서 골프가 대중화된 것도 IMF 구제금융 시절 박세리 선수의 LPGA 우승으로 비롯됨
- 연례 세계대회 또는 아시아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요트에 대한 노출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의 경우 최근 F1의 빠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 가능

- 요트 박물관의 설립

- 요트 박물관 (또는 항해 박물관) 설립을 통하여 전세계 요트 인구의 중심지 역할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요트 박물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 뉴포트 시 소재 IYRS (International Yacht Restoration School) 내에 있는 박물관이 유일함. 이 박물관은 주로 America Cup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 여수 엑스포 당시 개최됐던 범선 축제 경험, 이순신 장군의 전라 좌수영의 소재지, 장보고의 청해진 (완도) 등 해상 수도로써의 여수의 위치와 전통을 박물관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마리나와 직접 연결되는 수변에 위치할 경우 외국에서 요트를 타고 오는 요트 항해의 목적지으로써의 위상을 가질 수 있고, 세계 요트 스포츠의 상징적 장소로 이용될 수 있음.